

통역

21세기 최고의 전문직

번역사에게

도전하라!

Roh may send economic

최정화 지음

통역 번역사에 도전하라!

21세기 최고의 전문직

최정화 지음



셀레스코비치 교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2001년 6월 8일, 통역·번역학의 창시자인 다니카 셀레스코비치 파리 제3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E.S.I.T) 명예교수의 영결식이 파리 도핀 대학교 레이몽 아롱 강당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백여 명의 국제회의 통역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모국어로는 언어를 생각에 맞추지만, 외국어로는 생각을 언어에 맞춘다. 즉, 어떠한 생각이라도 모국어로는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로는 자신의 외국어 실력 정도밖에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

고인의 제자로서 참석하여 조사를 하던 필자는 위와 같은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학 시절 첫 수업 시간에 들은 셀레스코비치 교수의 이 말씀은 그 후로 한시도 필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외국어 공부에 열중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셀레스코비치 교수는 드골·퐁피두·미테랑 대통령에 이르는 수십 년간의 현장 통역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과는 달리 통역·번역학의 연구 대상은 의사소통 과정이며, 통역·번역에서 언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명쾌히 정의내린 바 있다.

통역과 번역의 기본은 건포도 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셀레스코비치 교수의 말을 빌리면 “통역과 번역은 구워내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 알아볼 수 있는 건포도에 해당하는 부분과, 빵 반죽 속의 밀가루나 우유처럼 구워내면 형태가 변하여 알아볼 수 없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영어 rice(라이스)를 우리말로 ‘쌀’ 이라 한다면 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건포도에 해당되고, 버스의 문이 닫히는 찰나 승객이 “porte(문)!”라고 소리치는 프랑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열어줘요!”라는 자막이 나온다면 이는 같은 의미를 전달하느라 형태가 변한 ‘반죽’에 해당한다.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는 ‘대응 표현’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등가 표현’을 건포도와 반죽에 쉽게 비유하여 설파한 것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통역·번역의 핵심을 일깨워준 셀레스코비치 교수와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셀레스코비치 교수는 단 한 번 만난 사람의 뇌리에도 번개처럼 각인되는 분이셨다.

필자는 은사의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나날이 늘고 있는 예비 통역·번역사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통역·번역의 이론과 실체에 관한 모든 것을 한데 정리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이라크전과 2001년 9. 11 뉴욕 테러 사태 때 방송사들의 속보 경쟁 속에 빛을 발해 왔던 ‘동시통역’은 우리나라 대중에게 있어 1991년 걸프전 발발 당시 처음 선보인 분야였다. 당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 비전문인들이 속보의 통역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해냈던 사람들은 외국어와 모국어 실력이 탄탄하고, 제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춰 지식 체계에 적응할 줄 아는 동시통역 노하우를 갖춘 국제회의 통역사들뿐이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곧 경쟁력이다. 통역·번역 능력을 갖춘다면 남보다 한발 앞서 다양한 기회에 노출될 수 있고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으며,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적극적인 삶을 원하는 미래의 통역·번역사들의 여정에 산뜻한 출발지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다시 내보낸다.

최정화

차례

제1부 최정화 교수의 통역 이야기: 통역의 세계로 통하는 길

00 국제회의 통역사의 하루 13

제1장 통역 · 통역사 바로 알기

01 생방송 동시통역을 해야 진짜 통역사? 16

02 통역은 곧 동시통역인가? 21

03 통역은 방식도 가지가지 22

04 통역사가 되는 길 47

05 통역시장에서 내 자리를 잡아라 53

06 통역의 역사와 중요성 57

제2장 성공하는 통역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07 통역사를 짧게 말하면? 66

08 프로 통역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67

09 통역사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 74

10 통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전공이 있을까? 76

11 배움에는 끝이 없다 78

12 통역사의 고충과 자부심 80

제3장 성공하는 통역, 이렇게 하라

13 통역 준비의 모든 것 86

14 성공하는 통역 vs. 실패하는 통역 96

15 충실한 통역의 척도 106

16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111

17 국제화 시대의 매너 10계명 115

18 최고의 통역사는 '기본' 이 다르다 120

19 국제회의 통역 교육 124

20 국제회의 통역의 미래 128

제4장 알이두면 요긴한 통역 정보 묶음

21 동시통역 장비들 134

22 자주 사용되는 국제회의 통역 용어 140

제2부 최정화 교수의 번역 이야기: 번역의 세계로 향하는 길

00 번역이란? 149

제1장 번역의 세계 이해하기

01 번역은 세계로 통하는 길 152

02 통역과 번역은 이래서 다르다 160

제2장 성공하는 번역, 이렇게 하라

03 번역, 무엇을 번역하는가? 166

04 충실한 번역의 기준 187

05 번역의 변수 191

06 번역의 방어 197

제3장 세상을 움직이는 번역의 힘

07 번역사가 되려면 212

08 번역사의 위상 217

09 번역사의 지위, 더 높아져야 한다 221

제3부 통역 · 번역 교육, 이렇게 한다

01 순차통역 229

02 동시통역 234

03 일반번역 238

04 전문번역 241

참고서적 및 참고자료 243
